

'북한산도로' 저지활동 본격화

공대위, 환경장관 면담 건설중단 요청

본사주지·종회의원 송추현장 찾아 격려

비구니회, LG그룹 사과·피해보상 요구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및 송추건설 현장 나무심기 등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불교 공동대책위와 종단, 환경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람환경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위안장 성타, 이하 공대위)는 8, 13일 국무총리, 건교부 차관과 면담한 데 이어 18일 김명자 환경부 장관을 만

나 불교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공대위 대표로 김 장관을 만난 현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은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관동도로 건설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불교계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규모 국책사업은 지역 공동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앞으로 대통령 면담과 국회 상임위 면담도 추진, 건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종단 차원에서도 사찰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스님 40여명은 18일 오후 의정부 송추 농성장을 방문해, 정진종인 회룡사 스님들을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공사현장을 둘러본 종회지사 지하스님은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종회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15일과

지 북한산 관동도로 등 5개 건설 사업의 취소·재검토·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요청서를 청와대, 건교부, 문광부와 각 당 정책위 등에 전달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범장도) 19일 고창 선운사에서 13명 본사주지들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월9일 북한산 환경과괴현장을 직접 방문키로 결의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21일 비구니스님 폭행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 중지 및 LG그룹의 사과 및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할 시 전국비구니회는 LG제품 불매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도 추진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19일 대전 지질자원연구소에 북한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를 의뢰했다. 불교환경연대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해 부실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불교환경연대는 식목일에 맞춰 의정부 송추 건설현장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조계사 인근 주상복합건물 건립 반대

삼양식품 구사옥 천막농성

한편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이날 조계사를 방문한 넥스트이미지 김정현 사장에게 "협약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철거작업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빌딩 건축과 관련해 조계사는 50m 이상의 규모는 곤란하다는 입장인 반면, 건축주인 삼양식품은 20m 이상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명우 기자

조계사가 인근 24층(높이 97m) 주상복합건물 착공을 저지하기 위해 19일부터 신축예정지인 삼양식품 구사옥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19일 오후 시공주인 넥스트이미지가 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작업을 벌이자 이를 저지했던 조계사는 시공주가 계속해 철거작업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 천막농성으로 공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천막농성장에서는 일정한 인원인 24시간 상주하게 된다.

미신고 복지시설 전국 637곳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불교 24곳 3.9%

전국적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637곳이며, 이 가운데 불교시설은 24곳(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342곳(5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191곳(31.0%)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설장이 개신교인 시설은 377곳(60.7%), 천주교는 210곳(33.8%)으로 전체 94.5%를 차지하는 반면, 불교는 24곳(3.9%)에 불과했다.

이는 불교계 미신고 시설과 시설장이 불교신자인 곳이 적은데다,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교계의 사회복지사업이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철우 기자

사이버포교 본격화

포교사단 인터넷교실개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지난 12~26일 서울 및 경기지역 포교사를 대상으로 정보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교실'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사이버 포교에 나섰다.

포교사단은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 동영상, 포교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네티즌 포교에 나선 계획을 밝혔다.

김재경 기자

법당난입 재발방지 약속 정대스님

경찰 문책인사, 종로경찰서장 108배 '참회'

재가연대 '999인 선언' 추진 진상규명 재촉구

지난 10일 발전노조원 강제연행시 조계사 대웅전에 경찰이 난입한 사건에 대해 21일 정대총무원장 스님이 교계 신행단체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백창기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해 김진관 서울광역시신도회장, 김대중 포교사단장, 연기영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김규범 대한불교청년회장(이하 대불청), 박문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이하 대불련) 등 6개 신행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대

총무원장 스님은 "중단안정과 조계사, 총무원이 분규현장으로 비춰지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해두었다"며 "경찰이 요청 의도와는 달리 과잉진압해 유감스러우나 서울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이 조계사를 사과방문했기에 이를 수용했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불교 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는 대불련, 진각종 청년회 등과 21일 모임을 갖고 총무원장 스님의 면담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대

의 뜻을 모아 333인이 참여하는 1차 선언을 발표해, 총무원 측의 진상규명을 재 촉구키로 결의했다. 또한 재가연대는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은 999인 선언과 지식인 선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공권력난입규탄 범종교청년학생결의대회'에서 김운선 종로경찰서장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참회의 뜻을 밝히고 108배 참회정진을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이대길 서울경찰청장도 종로서 경비과장과 정보과장을 전보 조치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김주일·강유신 기자



"환경부는 천성산 보전대책 수립하라" 양산 천성산내 원사 지음스님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노선변경을 촉구하며 2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스님은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환경부와 건교부 앞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사진=박봉원 기자

울산시립노인요양원 개원

29일, 100명 수용 최적시설 갖춰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전경.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상임이사 현문스님)이 수탁 받은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이 29일 개원한다.

지난 1월 24일 위탁받은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은 대지 536평, 건평 610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노인 1백 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울산시립노인요양원장 명판스님은 "통도사자비원, 울산시립노인요양원과 효율적인 연계로 노인분야의 전문 복지 서비스의 산실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울산=천미희 기자

종교관련 가계지출 연간 4조3692억원

강인철교수 발표

종교관련 가계지출이 연 4조3천 692억원에 달하며, 이는 월평균 가계지출의 1.5%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신대 강인철 교수(종교문화학)는 최근 발간된 계간학술지 '비평' 6호에 실은 '종교와 자본주의' 논문을 통해 "자본주의 하에서 종교와 경제가 분리된 것 같지만 이는 관계방식

의 변화"라며 "종교의 상품화와 산업화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종교를 '영혼주식회사'에 비유하며 △종교산업의 높은 수익성 △재정 사유화 경향 △재정 불투명성 △성직자의 'CEO화' 등을 폐해로 꼽았다. 강 교수는 "최근 일어나는 종교내부의 개혁운동은 종교의 비영리성, 공익성, 청빈성이 붕괴되는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질병의 치유와 건강, 취업과 승진, 진학과 사업의 번창 등 종교적 구원재가 다른 상품처럼 돈으로 교환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원우 기자

"평양 방문해 달라" 조불련, 방북 초청장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은 1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4월 2일부터 9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방북초청장을 보냈다.

이 초청장에서 조불련 박태화 위원장은 "종단협과의 유대가 강화되길 희망하며, 태고종 관음종 총무원장, 총지종 통리원장, 조계종 사회부장, 천태종 사회부장, 진각종 총무부장님의 평양방문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부처님 출가·열반일 행사풍성

일일출가·참선·금강경사경 등

식은 포교원장 도영스님, 포교부장 상운스님,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김대중 포교사단장과 각 신도와 백창기 중앙신도회장의 선언문, 이영자 불교여성개발원의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개별 사찰들도 의미 있는 행사들을 마련했다. 조계사는 21~28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의 '1일 출가' 참선 프로그램을 마련, 재가자들은 발우공양, 독경, 108배 정진 등 수행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서울 구름사는 10번째 금강경 사경을 펼 108 참회발원 정진주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정진주간 입재

사찰순례를 떠났다. 통도사 부산포교원은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주제로 부처님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도정진을 갖는다. 대구 관음사는 주지 우화 스님으로부터 '바른 불자로 수행하고 봉사한다'는 주제의 법문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매일 1천배 정진과 금강경 독경도 실천했다.

김재경 기자

2002 민족화합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 성지 순례단 모집

— 부처님오신날 봉축 통일염원 금강산 신계사 연등법회 봉행 —

- 순례기간 : 불기 2546(2002)년 5월 4일(토) ~ 5월 6일(월) [2박3일]
- 신청마감 : 4월 20일까지 (객실 예약관례로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동 함 금

행사 동참금	비 고
48 만원 (1인)	※ 성수기 정상요금과의 차액은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지원
※공통사항 : 호탸 해금강 일박실(2인1실) 기준 서울-속초간 버스요금(2만원) 별도	※ 일반 금강산관광 코스와 동일하며 불교행사가 추가됩니다

■ 관광코스

- 기본코스 (삼일포/해금강) : 고성향 - 온정리 - 삼일포 - 단풍관 - 장군대 - 해금강
- 선택코스 (택1)
 1. 구룡연코스 : 고성향 - 온정리 - 신계사터 - 옥란관 - 양지대 - 상록수 - 금강문 - 옥류동 - 연주담 - 비룡폭포 - 상팔암 - 구룡폭포
 2. 만물상코스 : 고성향 - 온정리 - 관음폭포 - 옥화암 - 만상정 - 삼선암 - 귀면암 - 절부암 - 안심대 - 천선대 - 망양대

■ 프로그램

- 2002 부처님오신날 봉축 통일염원 금강산 연등법회 (큰스님 법문)
- 참가자 전체 신계사 연등법회 동표달기 (연등과 동표는 현장에서 지급)
- 제출서류 : 관광신청서(접수처 문의), 여권용 칼라사진 2매,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 1부
- 접 수 처 :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3층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02) 720-0531 Fax 02) 720-0532
-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053-01-243500,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금강산 신계사 연등모연>

민족의 영산 금강산 신계사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염원하는 등불을 밝힐 연등모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연등 모연에 참여하실 사찰과 개인 불자님은 민족공동체추진본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